



다시 읽고 싶은 어린이책

사막에서 물 한모금을 마신 듯한 기분 김소운의 《보리알 한톨》

유경환 · 한국아동문학교육원 원장

6·25때, 피난열차에서 내린 곳이 대구다. 나는 그때 중학생이었다. 책을 모두 묻고 왔기에, 읽을거리가 없었다. 읽고픈 욕심도 배고플 때 먹고픈 욕심만큼 간절하다는 것을 그 때 체험했다. 대구의 근교를 쏘다녔다. 그러다 경산쪽으로 미군 동춘비행장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 입구에 칠성시장이라는 철길 밑 노점이 있었다.

어느날 사과케잌을 세워놓은 철길 밑 헌책방을 찾아냈다. 거기서 마침내 읽을 만한 한 권을 뽑아들었다. 김소운의 《보리알 한톨》이 그것이다. 서울 수도문화사 발행이다. 칠성시장에서 삼덕동 식산은행 관사에까지 걸으며면서 다 읽었다. 사막에서 물 한모금을 마신 기분이 그랬을 것이다.

아직 기억되는 것은 수필의 대가 김소운 선생이 '한 알의 밀알이 썩어...'를 보리알로 바꿔 쓴 내용이다. 이 시절, 어린이를 위한 수필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수필의 대가다운 글솜씨는 '나도 이 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수필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심어줬다. 그 뒤 틈마다 칠성시장에 가서 기웃거렸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문지기 아들》도 이 시절 읽은 소년소설이다. 감명을 받기로는 《보리알 한톨》보다 더했던 기억이다.

그러나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고 가슴 밑바닥에 앙금으로 남아 있기로는 역시 《보리알 한톨》이다. 근 5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보리알 한톨은 내 가슴을 발로 해 자라고 있다. 지금 어디서 구한다면 그림처럼 액자에 넣어 걸어두고픈 그런 한 권의 책이다.

열세 살 소년이던 때, 이 한권이 내게 준 정서적 자극은 한량없이 깊다. 기쁨 같은 문장의 흐름과 잘 맞아떨어지는 귀결, 그리고 그윽한 글의 맛을 이 한권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출고 배고팠던 피난시절이어서 책의 향기가 그리도 구수했던 것일까? ❖

나비와 어두운 방 이름을 알 수 없는 희곡집

성석제 · 소설가

내가 열 살 정도 먹었을 무렵이다. 큰집에 너댓 살 위인 형이 있었다. 그 형은 라디오 연속극 '전설파라 삼천리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덧붙인 듯한 이야기를 곧잘 해줬다. 그 형이 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해주었나.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게 늘 궁금했다. 나중이야 그런 충동이 유난히 강한 사람들,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소설가였다.

그 형의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책이 있었다. 굴러다니다 보니 표지가 떨어져 나가고 본문도

여기저기 찢어져서 책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학예회의 이동용 연극을 위한 희곡집이었던 건 분명하다. 그 안에 실린 여러 편의 희곡 가운데 <흰 나비를 잡으러 간 소년>인가, <흰 나비를 따라간 소년>, 또는 <흰 나비를 찾으러 간 소년>인가 하는 게 있었다.

병을 앓고 있는 내 또래의 소년이 있다. 소년은 늘 어두운 방 안에서 기침을 하고 있다. 소년을 돌보는 사람은 소년의 병이 덧칠까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 어느날 소년이 누워 있는 방 안으로 흰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어온다. 밖에서 비쳐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나비는 너울너울 춤을 춘다. 소년은 나비가 친구라도 되는 양 기뻐하는데, 사람들은 나비를 내보내고 문을 닫는다.

그 뒤로 소년은 늘 나비 이야기를 한다. 내가 아프고 심심한 줄 알고 찾아와준 단 하나의 친구라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던 어느날 소년은 죽는다. 슬퍼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 창백한 소년의 얼굴... 소년은 나비를 잡으러, 나비를 따라, 나비를 찾으러 간 것이다. 나비는 찬란한 햇살이 쏟아지는 봄 들뜬 위로 날아가고 소년은 나비 뒤를 끝없이 달려간다.

이것이 왜 눈물이 나도록 슬펐는가. 왜 나는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마다 이 책만을 보았는가. 오 헨리의 《마지막 인쇄》도 나를 울리지 못했는데, 내가 잘 아는 나비와 어두운 방, 병, 그리고 소년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듭해서 그 희곡을 읽을 때마다 책장은 눈물로

얼룩졌다. 내 마음속에서 소년이 떠나고 난 뒤, 나는 울지 않게 되었다. 내 소년도 나비를 따라 갔을까? ❖

새로운 이상 제시한 평화의 철학 이현주의 《바보 온달》

원종찬 · 아동문학평론가

어린 시절에 나는 동화책과 인연이 멀었다. 그 시절엔 많은 어린이들이 그러했다. 우리는 교과서를 받으면 제일 먼저 거기 실린 이야기거리부터 찾아서 몽땅 읽어 제꼈다. 교과서에서 읽은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들은 것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나는 '바보 온달' 이야기를 좋아했다. '바보'가 주인공이 된 이야기는, 못나고 주눅든 '보통' 아이였던 나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었다.

어른이 돼서 한번은 이현주의 장편 동화 《바보 온달》을 읽게 됐다. 이 작품은 '바보 온달' 이야기를 재해석한 것인데, 본디 줄거리의 흥미성에 바탕하고서도 영웅담의 구조를 숨쉴 좋게 뒤집어냈다. 원래 이야기는 온달이 평강공주의 도움을 받아 영웅으로 되면서 행복하게 끝난다. 그러나 이현주의 동화에서는 거꾸로 평강공주의 욕심 때문에 바보 온달이 전쟁 영웅이 되긴 하지만 본디 지니고 있던 순박한 마음을 잃고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과연 그럴 듯하지 않은가. 바보와 영웅에 대한 작가의 새로운 해석이 더 현충 작품의 일관성과 삶의 진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는 '바우'라는 곰이 새로 등장한다. 바보 온달은 사람들로부터는 멸시를 당해도



이제 우리도 세계적인 저자를 길러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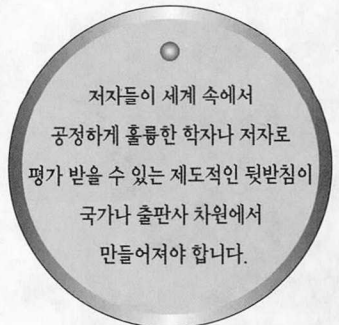
해외에서는 2,30년만에 손익분기를 낸다는 다국적 할인판매점들이 한국에서는 불과 2,3년만에 손익분기를 넘겨 한국은 세계적인 문화 소비국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할인판매점들은 IMF 상황 아래에서도 값이 싼 상품으로 시장에 대응하여 구매력을 오히려 크게 신장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경향을 축적하고 있는 베르텔스만이나 아마존 같은 다국적 출판 기업들이 한국 출판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바로 출판 인프라의 기초가 되는 유통이 취약하면 서도 도서 구매자들이 값싼 도서 구매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상품인 책이 시장 논리에 의해 평가받기 시작하면, 출판의 질은 한없이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출판 시장에서 그러한 시장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생명이 긴 책을 발행하거나 책의 독자층을 세계 시장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작가들에 대한 평가도 세계화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몇 특정 저자들은 외국에서도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평가는 거의 자력으로 이루어낸 것이지, 정부나 출판계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저자 개인에게 맡겨놓고 세계 7위의 출판국가라는 허울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한국 출판계가 세계 출판 시장에 많이 진출해야 하는 것은 필연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자들이 세계 속에서 공정하게 훌륭한 학자나 저자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국가나 출판사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좋은 작가들을 세계 출판 시장에 뿌리 내리게 하지 못하는 한, 한국 출판의 세계화는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판사들은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를 발굴하고 양육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영커뮤니케이션 · CUP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7가 38-93 장충빌딩 B동 3층
출판부 T.2264-7211~3 출판유통사업부 T.830-8566 F.830-8567 도모사업부 T.851-2248
CUP는 예영커뮤니케이션에서 위탁 경영하는 출판사입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과는 평화롭게 어울려 살고 있었다. 그런데 바보 온달이 영웅 온달이 되고 나서는 자연에 대한 열린 마음을 잃어 결국 절친한 사이였던 바우와 싸우다 둘 다 죽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만다. 작가는 바보와 영웅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전쟁이 야기한 불행을 고발하고 사람과 자연이 평화롭게 어울려 사는 새로운 이상을 제시한다.

1973년에 처음 나오고 1988년 새벗사에서 다시 나온 이 책은 그나마 오래 전에 절판이 돼 지금은 구해보기가 무척 힘들다. 그러나 이 작품에 스민 평화의 철학이라든지 새로운 문명에 관한 통찰은 오늘에 와서 더욱 절실해지고 있으니, 요즘 아이들도 쉽게 찾아 읽을 수 있도록 다시 출판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불의와 싸워 이기는 정의의 힘

이현주의 《달려라 박달부대》

조월례 · 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

이 책은 85년 햇빛출판사에서 나온, 200자 원고지 350매가량 되는 중편동화다. 이야기는 주인공 박달소년이 문경새재에서 무학 스님에게 무술을 배운 후 서울로 올라와 겪는 몇가지 사건과 그것을 해결해 가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박달은 5학년이지만 실제 나이는 두 살 많은데 서울로 와서 덕재네 지하에 세를 들고 덕재와 덕재 친구 용하·명은이 등과 어울리면서 여러가지 일을 겪게 된다.

박달은 동무들과 스케이트장에 갔다가 '불가사리'라는 별명이 붙은 동네 깡패 두칠이가 나타나 시비를 거는 바람에 싸움이 붙는다. 두칠은 조그만 박달을 깔보고 '짜 몽개' 버리려 했지만 무술로 단련된 박달에게 깨끗하게 지고 항복하기에 이른다. 다음은 학교 앞에서 빵빵이를 돌리면서 속입수를 써 아이들 돈을 뺏아가는 청년 빵코와 싸움이 붙는다. 박달이 빵코와 치고박는 동안 소식을 듣고 유도선수였다 의리 있는 김관용 선생님이 나타나자 빵코들은 달아난다. 박달 일행은 여름방학을 맞아 김관용 선생님과 함께 고향인 문경으로 갈 때 박달에게 당했던 깡패들이 나타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문경으로 가서 산과 들에서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늘 일에 바빠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던 찬성이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꾸민 유괴사건을 겪기도 한다. 깡패가 실제로 아이들의 돈을 빼앗고 괴롭히기도 하기 때문에 두칠이나 빵코같은 깡패들을 혼내주는 장면은 통쾌하기 그지없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깡패들을 만나면 무섭고 겁부터 나서 감히 박달이처럼 대들어 싸울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은 불가능한 현실을 상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데 힘을 갖는다. 함께 실린 <개구리>는 학교에서 왕초로 군림하는 '나가' 약한 아이들 위에 군림해 누구도 그와 맞설 생각을 못하는데 도저히 힘으로는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 '개구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다. '나가'는 힘으로 개구리를 제압하려 하지만 아무리 맞어도 항복하지 않는 개구리에게 무릎을 꿇는다. 불의는 결국 정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된다는 진리를 보여준다.

또 죽음을 맞게 되리라는 걸 알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를 하려던 무리에 동조하지 않는,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그린 <매꽃과 쌀밥> 등이 동화집의 커다란 주제는 불의와 맞서 싸워 이기는 정의의 힘이다. 아이들의 현실을 반영해 공감의 폭이 크기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이 유지되면서 흥미롭게 전개된다. 옳지 않은 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재미있게 읽는 동안 세상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아이들이 박달과 같은 동무들과 만나는 기쁨을 다시 공유하고 싶다. ❖